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3월호



연극



세계 누비는 클래식 스타들의 광주 무대

손열음, 임동민, 박재홍, 최하영...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한 클래식 스타들이 대거 몰려온다.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주는 리사이틀과 광주시립교향악단 협연무대를 통해서다.

■ 젊은 거장의 리사이틀
임동민은 슈베르트 곡만으로 레퍼토리를 꾸며 광주 무대에 선다. 오는 4월14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요일에서 열리는 '임동민 피아노리사이틀-슈베르트'다.

이번 공연에서는 슈베르트의 '즉흥곡' 전곡과 '피아노 소나타 21번 D.960'을 들려준다. 슈베르트의 작품 중 '네 개의 즉흥곡 D.899'과 '네 개의 즉흥곡 D.935'은 슈베르트의 타고난 서정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8개의 곡 모두 매력적이다. 19, 20번과 함께 후기 소나타를 대표하는 '피아노 소나타 21번'은 슈베르트의 마지막 소나타 작품으로 그의 걸작으로 꼽힌다.

1996년 국제 영 소평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린 임동민은 부조니 콩쿠르 3위, 차이콥스키콩쿠르 5위를 차지했으며 동생 임동혁과 함께 2005년 한국인 최초로 쇼팽 국제콩쿠르 공동 3위에 입상하며 화제를 모았었다.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모차르트와 함께다. 올해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에 도전하는 손열음은 오는 6월2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요일아트홀 무대에 선다.

모차르트는 전 생애에 걸쳐 모두 18곡의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했다. 이번 연주에서는 인터미션을 제외하고 2시간에 걸쳐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중 '1번 C장조, K.279'부터 '6번 D장조, K.284'까지 6곡을 연주

임동민 피아노리사이틀-슈베르트
손열음 모차르트 소나타 리사이틀

부조니 콩쿠르 우승 피아니스트 박재홍
퀸 엘리자베스 1위 첼리스트 최하영
강충모·이혜전·심준호·브랜든 최 협연

한다.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NAIVE' 레이블을 통해 발매된다.

2011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손열음은 당시 '피아노협주곡 21번' 연주로 모차르트 협주곡 최고 연주상, 콩쿠르 위촉 작품 최고 연주상 등도 함께 수상했었다.

또 2019년 열린 BBC 프롬스를 비롯해 마에스트로 네빌 마리너와 함께 모차르트 음반을 발매하는 등 모차르트에 대한 애정을 보여왔다. '하노버에서 온 음악 편지'로 뛰어난 글솜씨를 보여주기도 한 그는 대관령 음악제 예술감독도 맡아 기획력을 선보였다.

임동민·손열음 두 공연 모두 티켓 예매(전석 5만원)를 시작했다.

■ 광주시립교향악단 협연무대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세계 유수의 콩쿠르에서 우승한 정상급 클래식 아티스트들과 협연 무대를 마련한다. 광주시향은 지난해 반 클라이번 콩쿠르 최연소 우승자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5번 황

제' 공연 실황을 도어치 그라모폰에서 음반으로 발매해 화제가 됐다.

올해도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를 초청한 시향은 신년 음악회에서 파가니니 콩쿠르, 시벨리우스 콩쿠르 우승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 협연하며 스타트를 끊었다.

2021년 제63회 부조니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박재홍의 광주 공연도 기대되는 무대다. 여수 출신 문지영에 이어 한국 피아니스트로는 두번째 우승을 거머쥐었던 박재홍은 부조니 작품 연주상, 실내악 연주상 등 특별상도 받아 5만원을 달성했었다.

오는 10월26일 예정된 공연에서 그는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를 들려준다.

쇼팽 피아노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음악 콩쿠르로 불리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지난해 우승자인 첼리스트 최하영(8월31일)도 광주 무대에 선다. 연주 레퍼토리는 경쾌한 선율이 인상적인 하이든의 '첼로협주곡 1번'이다.

6월 16일 공연에는 두 명의 솔리스트가 함께 한다.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이 브람스의 '바이올린협주곡 D장조'를 연주하며 국내를 대표하는 정상급 오르가니스트 신동일은 생상스의 '교향곡 3번 오르간 C단조 op 78' 협연자로 함께 한다.

부부 피아니스트 강충모·이혜전(9월23일)은 폴랑크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들려주며 바이올리니스트 이혜정과 첼리스트 심준호의 협연 무대(7월21일)도 마련돼 있다.

올해 마지막 공연(12월8일)에서는 색소폰 연주자 브랜든 최가 호흡을 맞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따뜻한 새봄에 어울리는 '반려식물' '국민건강 멘토' 이시형 박사 초대석

'짜이 되어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의 반려(伴侶).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구는 600만 가구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제 반려의 대상은 개·고양이를 뛰어넘어 식물과 돌멩이, 악기, 공구, 로봇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가히 '반려시대'로 불릴 만하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연극' 3월호는 특집 '지금은 반려시대'를 통해 다양한 반려이야기를 전하고 새봄을 맞아 식물로 공간을 꾸미는 플랜테리어, 초보 '식집사'들을 위한 새봄에 어울리는 반려식물 등을 소개한다.

3월에 초대하는 예향 초대석 주인공은 '국민건강 멘토'이자 '국민 주치의'인 이시형 박사(사)세로토닌문화원장)이다. 이 박사는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뛰어넘는다. 올해 아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글쓰기와 NGO 활동, 대중강연, 유튜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신인류가 몰려온다'를 펴낸 이 박사에 게 '초고령 사회'에 대한 처방과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문화운동, '멋지게 나이 드는 지혜'에 대해 물었다.

"꽃피는 봄날에는 '문불여 장성(文不女長城)'으로! 남도 오디세이 美路(미로미로)가 향한 곳은 황룡강의 봄꽃을 자랑하는 장소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팔암서원, 측령산 편백숲, 홍길동 테마파크, 천년고찰 백양사, '꽃강' 황룡강과 복합문화공간 오피먼트, 백련동 편백농

원의 시골밭상, 장성 로컬푸드까지 장성의 맛과 맛을 찾아 길을 떠난다.

지면으로 만나는 해외문화기행지는 스웨덴 스톡홀름이다. 북유럽의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다양한 문화자산을 품고 있다. '관광 1번지'로 통하는 구 시가지 갈라스타운을 필두로 스톡홀름 대성당, 노벨박물관, 스톡홀름 현대미술관, 아바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특색있는 볼거리를 자랑한다. 코로나19 완화로 여행자들의 로망 1순위로 떠오르고 있는 '북유럽의 베네치아' 스톡홀름의 역동적인 현장을 둘러봤다.

반가운 공연소식도 들려온다.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이면 문화도시 광주 시민들의 발길은 ACC로 향한다. 다채로운 음악과 이야기로 재미와 감동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브런치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한 '브런치 콘서트'의 2023년 라인업을 소개한다.

이외에 흥미로운 공간 연출과 콘텐츠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신개념 여행자컬처 그라운드 '여행자의 ZIP', 예술적 감성이 뛰어난 조형물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선사하는 인천의 공공조형물,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억의 공간이 된 독일 베를린에 '역사를 기억하는 법', 예향의 대가인 김장생과 그의 부친 김계휘, 아들 김집의 위패가 모셔진 논산 단암서원 이야기를 담았다. /이보람 기자 boram@

선명한 색채로 표현한 '불안한 감정'

신황제 개인전, 3일~4월2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신황제 작가 개인전이 오는 3일부터 4월 2일까지 광주문예회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신민석)이 지역 작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한 공모에 선정돼 마련됐다.

'LAYER'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황 작가는 강렬한 색채와 거친 붓질로 화면을 구성하고 물감의 마티에르를 강조한 회화 작품 20점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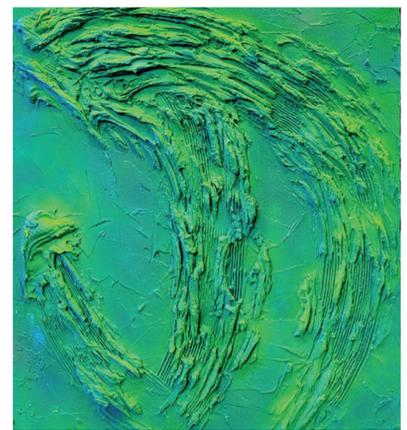
'켜켜이 쌓는다'는 의미의 'LAYER'에서 알 수 있듯 그의 작업은 물감을 두텁게 겹쳐 올려 질감을 강조한 게 특징이다. 더불어 다채로운 색감을 조합해 인상적인 화면을 만들어낸다. 아크릴 물감과 함께 공사판에서 마감재로 사용하는 핸드코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작업했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불안'에 대한 끝없는 탐구라고 말한다.

김아연 전시 담당자는 그의 작품에 대해 "사회적 고립, 경쟁, 폭력 등에 억압된 현대인의 감정을 표출하고 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고 때론 자극적인 상황을 추구하면서 불안 자체를 즐기는 모순된 모습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여러 텍스처 이미지를 겹겹이 중첩하는 형상을 통해 불안한 심리상태와 무의식 등을 묘사하는 작가는 불안이 갖고 있는 어둡고 무거운 색채 대신, 밝고 선명한 색감으로 작품을 구성해 색다른 느낌을 전한다.

전남대 미술학과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신 작가는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현재는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개인전 10회 및 다수의 단체전에



'layer11'

참여하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62-613-835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건용 작 'Bodyscape'

튀르키예 어린이 위한 특별 자선 경매

케이옥션·아이프치ldr, 4~14일 76명 작가 참여

튀르키예 지진 피해 어린이 구호를 위한 특별 자선 온라인 경매가 열린다.

케이옥션과 예술나눔 아트플랫폼 아이프치ldr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경매에는 76명 작가의 작품 100점이 출품됐다. 회화, 조각, 사진, 공예, 스케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아우른다.

경매는 오는 4일부터 14일까지 열리며 프리뷰 장소는 서울 케이옥션 본관이다. 경매 마감은 14일 오후 4시다.

출품작의 가격은 100~200만원 대가 주류를 이루며 출품작 중 최고가는 이건용 화백의 8호 크기 작품 'Bodyscape-76-1-

2019'로 전자기액 4600만원(시작가 2800만원)이다.

그밖에 김명식·김남표·이동재·태담·이사라·이상표·김영원·윤병락·신철 작가 등의 작품이 나왔다. 작가들은 낙찰가 기준으로 전액을 기증하거나 50%를 기부하게 된다.

어린이 피해 계층을 위한 구호 자금 마련이라는 특성을 살려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위안을 지속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스케치북 등 미술용품은 위주로 한 현물과 현금도 함께 전달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정주리 감독 '다음 소희' 영화평 남겨주세요

광주영화비평지 'Scene 1980' 봄호 게재...4월2일까지 모집

광주영화비평지 'Scene 1980'이 13호인 2023년 봄호에 실릴 독자들의 영화평을 모집한다.

광주영화영상인연대에서 발행하는 'Scene 1980'은 지난 11호부터 작품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짧은 평을 실는 'Pick and Talk(픽앤톡)' 코너를 신설, 운영중이다.

편집위원회가 정한 이번 달 영화는 '도회야'의 정주리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다음 소희'다. 배우나와 김시은이 주연을 맡은 '다음 소희'는 지난 2017년 실제

일어난 현장 실습생 자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칸느영화제 비평가주간 폐막작으로 선정됐다.

영화와 글쓰기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마감은 오는 4월2일 자정이다. 10명 이내로 선정하며 광주독립영화관 무료 관람권 2매 증정한다.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p/CpIYzkkvM4/?igshid=YmMyMTA2M2Y>)에 들어가 게시물 댓글로 50자 내외의 단평을 쓰면 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다음 소희'